

미쓰비시에 99엔 받은 강제동원 피해 정신영 할머니, 광주지법서 호소한 이유는

“감옥 같은 생활 뒤 손에 쥐는 건 931원 3년 넘게 끈 재판 빨리 마무리해 달라”

밥 제대로 안취 쓰레기통 뒤지기도 위안부 오해 받을까 사진도 다 없애 불편한 몸 이끌고 억울한 사연 토로

“아이고 판사님한테 할말을 다 못해버렸네. 일본에서 고생한 일을 다 말해야 하는데...”

지난해 일본 후생노동성 산하의 일본연금기구로부터 931원(99엔)을 받은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정신영(93·나주) 할머니가 18일 법정을 나와 한 말이다.

이날 광주지법 민사13부(부장판사 임태혁)는 정씨 등 4명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2억 4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이날은 법률대리인인 변호사만 참석하면 되지만, 정씨는 불편한 몸에도 불구하고 지팡이 대신 우산에 몸을 의지한 채 법정에 섰다.

재판부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었기 때문이다. 정씨는 일본에서의 고생과 억울한 사연을 재판부에 알리고 3년이 넘게 지속되고 있는 재판을 빨리 마무리해 달라는 요구를 하고 싶었던 것이다.

재판부가 “하고 싶은 말을 하라”고 하자 정씨는 “막상 머리가 하얗게 돼 무엇보다 말을 해야 할지 몰라 일본으로 가게 된 사연만을 가볍게 말할 수밖에 없었다”고 웃어보였다.

정씨는 1944년 초등학교를 졸업했지만, 학교에 불려가 ‘일본에 가면 좋은 학교도 다니게 해주고 밥도 잘 준다’는 말에 속아 여수에서 배를 타고 일본으로 건너갔다. 이때 같이 건너간 친구들은 25명 정도로 정씨는 기억하고 있었다.

하지만 일본에서의 생활은 감옥과 같았다. 매일 아침 7시부터 미쓰비시 항공기 제작소에서 페인트 작업을 반복했지만, 제대로 된 대우를 받지 못했다.

시녀와 독한 약품을 취급하다 보니 손끝이 갈려 나가 피가 났지만 치료를 받지 못했다. 미군의 일본 본토 공습이 시작되면서 생활은 더 힘들어졌다. 매일 공습경보가 울려 이불을 뒤집어 쓰고 두려움에 떨었고 방공호를 찾아 도망 다니기 바빴다.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정신영(93)할머니가 18일 재판이 끝나고 법정 앞에서 소감을 말하고 있다.

밥도 주지 않아 쓰레기통을 뒤지거나 감나무 밑에 떨어져 씹어버린 감을 주워먹을 수 밖에 없었다. 그해 12월 7일 도난카이 지진으로 공장 벽이 무너져 한국에서 함께 건너간 친구들 6명이 숨지기도 했다. 나고야 공장 가동이 불가능해지자 정씨를 포함한 강제동원된 피해자들은 1945년 도야마 미쓰비시 공장으로 옮겨 일하다 광복을 맞고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

이런 고초를 겪었지만 정자 정씨의 손에 쥐어진 것은 동전 세계뿐이었다. 일본에 다녀왔다는 이유로 위안부로 오해받을 수 있었던 탓에 불만을 얘기할 수도 없었다. 정씨는 그 시절 친구들과 함께 일본에서 찍은 사진을 모두 찢어 없애버린 것을 지금도 후회하고 있다.

정씨는 지난 2017년 광주지방법원 근로정신대 판결 소식을 듣고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을 찾았다.

2020년 1월에는 피해자 32명과 함께 일본 6개 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2차 집단소송에 참가했다. 이 집단 소송은 2019년 4월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54명이 일본 9개 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1차 집단

소송에 이은 것이다.

정씨 재판은 국제 송달로 보낸 소송 서류를 일본 정부가 피고 일본 기업에 송달하지 않고 피고인 미쓰비시 측이 계속 출석하지 않으면서 3년째 공전됐다. 하지만 조만간 광주지법에서 1심 판결이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4월 재판부가 피고인 소재지를 알 수 없을 때 관보 등에 서류를 게재함으로써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공식송달을 명령하고 재판을 이어갔기 때문이다.

결국 미쓰비시중공업 측은 변호인을 선임하고 옛 미쓰비시와 다른 회사이며 1965년 한-일 협정으로 개인의 청구권도 함께 소멸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재판부는 오는 8월 17일 변론을 종결하기로 해 한달 정도 뒤 선고가 내려질 전망이다.

정씨는 “일본도 과거 전쟁 때문에 힘들었던 만큼 이제는 노인이 된 우리를 생각해야지. 우리 대통령도 늙은이들을 살릴 것인가 죽일 것인가 모르겠다”며 “일본은 왜 아직도 독도는 자기 땅이라며 그저 빼앗아 가려고만 하느냐”고 우리 정부의 제3차 변제안과 일본 정부 모두를 비판했다.

/글·사진=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광주 고교생들 “5·18 계승 교육환경 구축을”

고교학생의회, 학생 참여 가능한 5월단체 증설 등 요구

광주 고교생들이 5·18 정신을 계승하고 실천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구축해달라고 촉구했다.

광주시고등학교학생의회(이하 고등의회)는 18일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 입구에서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인식 제고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고등의회는 “5·18민주화운동에 대해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정보 전달만을 위한 교육을 지양하고, 역사를 스스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새로운 교육 방안을 모색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어 “학생들에게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그릇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역사 왜곡과 민주주의 정신을 해치는 정보들을 배척하고, 올바른 정보를 분별력 있게 습득

할 수 있도록 여러 매체의 정보 검토와 잘못된 정보 수정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5월 민주화 운동에 대한 정보 접근 확대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왜곡을 바로잡는 교육 ▲학생 참여 가능한 5월 단체 증설 ▲5월 정신 체험 기회 확대 등을 요구했다.

제12기 고등의회 박성현(광주고 3년) 의장은 “이번 성명은 5·18민주화운동의 역사가 미래세대까지 계승될 수 있도록, 올바른 교육을 통해 모든 학생이 5·18 정신을 기억하길 바라는 마음에 발표했다”며 “광주만의 5·18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5·18, 세계의 5·18이 되도록 함께 행동하겠다는 의지를 담았다”고 말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

이란대사관, 광주인권상 특별상 이란교사노조 수여 항의

주한이란이슬람공화국 대사관이 최근 5·18기념재단에 ‘2023년도 광주인권상 특별상을 이란교사노동조합에게 수여한 것을 규탄한다’는 항의성 입장문을 보내 왔다.

5·18기념재단은 지난 12일 입장문을 이메일로 전달받았으며 같은 날 이란 대사관으로부터 항의 전화도 받았다.

이란 대사관은 입장문을 통해 “인권 특별상 수여는 일부 악명높은 하층인 개인과 단체를 지지하는 동시에, 문명화되고 위대한 국가인 이란이슬람공화국의 얼굴에 먹칠을 하고 이란 공포심을 자극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란 대사관은 “대한민국은 이란에 대한 미국의 잔혹한 경제 제재 행위에 동참하고 있다”며 “사은주

의 아파트헤이트 정권이 70년 넘는 기간 동안 팔레스타인 영토에서 잔인한 탄압을 자행하고 있고, 최근 무고한 아이들과 여성들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공격을 했는데 5·18기념재단은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있어 놀라울 따름이다”는 입장도 밝혔다.

앞서 5·18기념재단은 지난 8일에도 장청강(張承綱) 주광주 중국총영사로부터 홍콩 인권변호사 초우항팅씨에게 수여하기로 한 광주인권상을 철회하라는 항의를 받았다. 5·18기념재단 관계자는 “광주인권상 수상자 선정은 전문가 의견과 검증 거쳐 결정으로, 수상을 철회하지 않을 것”이라며 “홍콩과 이란은 국제사회로부터 민주주의와 인권 문제로 인한 비판 목소리를 받고 있음을 외면하지 않을 바란다”고 말했다. /유연제 기자 yiyjou@

광주 예비군훈련장 부실 도시락 ‘논란’

배달 늦어져 2시간 기다리고 일부 방치된 도시락에 식중독

광주의 한 예비군훈련장에서 예비군들에게 식사 시간을 10분 밖에 제공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일부 예비군은 바깥에 오랫동안 방치됐던 도시락을 먹어 식중독에 걸렸다고 주장해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

18일 육군 제31사단에 따르면 지난 15일 광주시 북구 일곡동의 예비군훈련장에서 전남대 학생 407명을 대상으로 학생예비군 훈련이 진행됐다.

이중 359명이 점심식사를 신청했고, 이들은 낮 12시 30분부터 점심을 먹기 위해 강당에서 대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낮 12시 30분으로 예정됐던 업체의 도시락 배달이 늦어지면서, 예비군들은 길게는 2시간 동안 점심을 기다렸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예비군 3년차 장모씨(25·전남대 4학년)는 “오후 2시 30분쯤 식사를 했고, 3시부터 교육이 있다고 해 10분 만에 식사를 마쳐야 했다”며 “2시간 동안 해명도 없고, 관리가 부실해 국방부에 도시락 납품업체명과 식사 지연 사태에 대한 전반적인 자료를 요구하는 정보공개청구를 했다”고 말했다.

예비군 훈련이 끝나고 난 뒤 전남대 에브리타임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군의 미흡한 대처에 불만을 토로하는 글이 수십건 올라왔다. 15일 31사단에 점심 관련해 제기된 민원도 11건인 것으로 전해졌다.

바깥에서 오랫동안 도시락이 방치돼, 식중독에 걸렸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예비군 1년차 양모씨(25·전남대 2학년)는 광주일보 취재진에 진료확인서를 보여주며 “훈련 후 귀가했는데 새벽부터 몸에 열이 나면서 설사를 하기 시작했다. 다음날에는 온몸에 빨갛게 두드러기가 나 급하게 주사를 맞고 약을 처방받았다”며 “의사가 ‘그전에 먹은 음식이 원인’으로 보인다고 말해, 훈련장에서 점심으로 먹은 도시락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31사단 관계자는 “예비군 규정에 따라 1시간동안 점심시간을 제공했고, 마지막 조가 식사를 시작한 시간은 2시 25분 정도로 추정된다. 식사 시간이 늦어진 이유에 대해 명확히 설명해주지 못한 점은 인정한다”며 “도시락은 식중독의 우려가 있어 모두 식힌 상태로 제공되며 식당 바깥에서 도시락을 스티로폼 보냉 박스에 넣어 분배했다”고 설명했다. /전홍희 기자 strong@kwangju.co.kr

5·18 전야 폭주족 28명 적발... 음주운전까지

5·18민주화운동 기념일인 18일 광주 시내 주박가에 또다시 폭주족들이 등장해 이들 중 일부가 경찰에 입건됐다.

광주경찰청에서는 이날 새벽에 산발적으로 난폭 운전 등을 한 28명의 운전자들을 도로교통법 위반과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단속 및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전날 밤 11시부터 이날 새벽 4시까지 광산구와 북구 일대에서 산발적으로 차와 오토바이로 난폭운전과 함께 무면허, 음주운전을 한 혐의를 받는다. 또 일부는 소음기 불법 튜닝 등의 혐의도 받고 있다.

광주경찰청에서는 한국교통안전공단과 광산구 수완지구 국민은행 사거리 3개 방향에서 단속을 실시, 이

들 폭주 단체에 대한 음주, 무면허 등의 위반 사실을 적발했다.

이중 축법소년은 없으나 연령대는 10대 후반부터 20대로, 대다수가 광주지역에서 배달 라이더로 일하는 이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아버지날인 지난 8일 광산구 수완지구 일대에서 4시간 가량 소음과 사고를 일으켰던 폭주족들이 최근 SNS에 재등장을 예고한 바 있다. 경찰은 이들이 SNS에 글을 올린 이들과 동일한 폭주족인지에 대해 조사 중이다. /김다인 기자 kdi@

싼 **임야, 삽니다**
맹지사절. 010-9582-7400

대인동 **상업용지, 매매** 신안동

대인동 - 156평, 매매 - 21억

신안동 - 176평, 매매 - 23억

상업지역, 오피스텔 허가득, 변경가문의. 010-3605-5000